

## 고창군 '노지 스마트농업지구' 전국 최초 선정

농식품부 공모 확정 5곳 중 포함  
 배추·무 중심 500ha 조성  
 3년간 95억 투입 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 밭농업 도입

도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과 김제시가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무주군이 선정돼 30억 원 규모의 사과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시설 스마트팜 집적화, 과수 스마트농업, 노지 스마트농업까지 아우르는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선정은 시설·과수·노지를 아우르는 스마트농업 전 주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혁신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이한선·황선철 변호사 위촉

2년간 법령 해석·의정 자문 수행  
 의회 소송 수행 지원 역할  
 법률 전문성 기반 의정 지원

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개정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력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전북도의회는 4일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를 각각 위촉했다. <사진=전북도의회>

## 박희승 '노인 돌봄 시간저축' 세미나 개최

5일 국회 제6간담회실 개최  
 봉사시간 적립 돌봄제도 논의  
 장기요양·통합돌봄 현황 발표



박희승 의원. 김요양보험 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홍성희 KBS 보도시사본부 정책행정부 기자,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총괄과장, 신동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이 토론자로 함께할 계획이다. 좌장은 이미진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이 맡게 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노인 돌봄 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위성곤·이수진·장종태(가나다순) 국회의원과 김동의 성균관대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주제인 '노인 돌봄 미 봉사시간 저축은행'은 5·60대에 노인 돌봄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얻는 시간을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적립한 봉사시간을 제공받는 제도를 뜻한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동의 교수가 첫 발제를 맡아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각각 '노인 장

박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 노인 돌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제안될 노인 돌봄 미 봉사시간 저축은행이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노인 돌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발굴 박차...33건 심사

풍수해생활권·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시군 신청사업 사전 컨설팅 진행  
 타당성 검토 월말 행안부 신청 추진

이번 심사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체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평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사에는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시군의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재해위험 분석의 적정성, 피해 저감 효과의 객관성, 사업 규모 및 공법의

합리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필요 시 구조적 보완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중심의 자문에 초점을 맞췄다.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국특)로 지원받는 구조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

해 사업별 타당성과 보완할 사항을 컨설팅 및 자체심사를 거치고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 전북도,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후속조치 실행 '속도'

### AI데이터센터·수소산업 추진 전담팀 구성 인허가 밀착 지원 전력·용수·부지 원스톱 대응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

전북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체결한 새만금 9조원대 투자협약이 최종 실무자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실행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대차가 계획 중인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수소AI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력 공급과 인허가, 규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 현안을 통합 관리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대기업 투자 지연과 무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전담 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다. 로봇 분야는 자동차산업팀장, 수전해 플랜트는 수소산업팀장, 재생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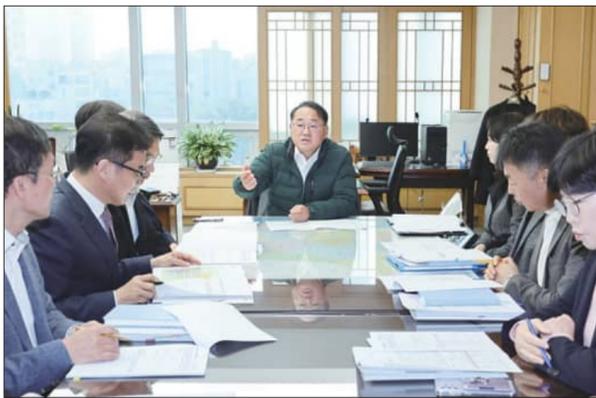
지는 RE100팀장, AI데이터센터는 디지털정책팀장, 수소AI스마트도시는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소통·기획은 기업유치1팀장이 각각 맡는다.

각 팀장은 사업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돼 인허가와 부처 협의, 인프라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주간회의를 통해 장애를 공유하고 단장 중심으로 조정한다.

사업 협업은 현대차 실무진과의 '핫라인'으로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별 타임테이블을 마련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 시점까지 밀착 지원한다. 기업은 전담팀장을 통해 전력·용수·부지·교통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을 일괄 상담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협의체 절차를 단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실증특구 지정과 제도 개선, 규제 특례 발굴도 병행한다. AI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전력·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로봇 제조공장과 연계한 지역 부품기업 참여 확대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원스톱 대응체계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 환경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4일 현대차와 체결한 새만금 투자협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실행체계를 논의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 투자가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담 공무원 책임제와 원스톱 지원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실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AI·수소·로봇 산업 집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RE100 기반 구축으로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

/장정철 기자



## 도,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도민 3171명 지원

### 26년 신청 9~23일 온라인 접수 1인 연간 35만원 포인트 제공

전북도는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26년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1시까지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북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도민에게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된 도민은 도내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지원금(포인트)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171명이며, 신청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일

이용권별 지원 대상은 △일반(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디지털(30세 이상,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각 유형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NH농협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포인트)을 지급받으며, 지급된 지원금(포인트)은 8월말까지 도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131개의 기관(2026.2.28.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어, 자격증, AI,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용기관 및 운영 강좌에 대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jbile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현용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올해에도 더 많은 도민이 배우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대학가 찾아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

### 원광대 이어 전주대서 홍보 부스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배부 이자·월세·이사비 지원제 홍보

전북도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직접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입학식 현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안내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4일 전주대학교 신입생

직영력 강화 프로그램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근저당권·압류·신탁 여부 등 주요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생들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도내 전

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총 560건이다. 이 가운데 약 75%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첫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세를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신설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피해로 이주하는 임차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은 만큼, 임대차 계약 전 위험요인 확인이 중요하다"며 "대학교 중심의 예방 홍보를 확대해 청년층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자치도, 신학기 학교 주변 안전 조성 캠페인

### 혁신도시 만성초·중 일원 진행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안내

전북도는 4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만성초등학교와 만성중학교 일원에서 전주시, 덕진경찰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아이 먼저, 안전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통학을

시작하는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사고, 유괴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어린이 제품 및 유해환경 예방 △어린이 유괴 예방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통학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은지 기자



<사진=전북도>

## 이원택 "김관영 지사, 12·3 계엄에 순응했다" 주장

### "계엄 대응 문건 해명과 달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계엄 포고령 제1호 대비한 것으로 내란을 방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며 35사단이 경교 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한 뒤에 "전북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문건에 준예산 편성 준비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지방의회 기능 마비 상황을 전제로 한 행정 준비였다고 지적했다.

도청사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평상시 방호 조치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관련 문서와 기록을 보면 실제 청사 통제 조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를 도내 시·군에 전달한 점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시였던 만큼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후려 상쾌한 공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장래의 운전 필수템!  
점 씹기**

**워니 워니 해도 자는 게 최고!  
졸음 쉼터**

**우리가 어떤 민족? 흥의 민족!  
노래 부르기**

# 전주시설공단 '2026년 중점 업무 계획' 발표

## 4대 경영 목표 수립 지역 경제 선순환 앞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 비전과 함께 2026년 중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4일 시민 안전과 일상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운전 윤리경영 △소통공감 동행협력 △고객만족 시설관리 △혁신역량 지속발전 4대 경영 목표로 수립됐다. 특히 책임경영에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 △지역 협력 강화 100% △고객 만족도 92점 확보 △AI·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10건 추진 등의 목표를 구체화했다.

◇ 첨단기술 현장점검 결합..365일 무결점 안전망 구축



공단은 2026년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 안전에 두고, 실질적인 안전 문화 조성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CCTV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

고 예방하는 첨단 안전망을 가동한다.

◇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상생·소통 '동행 행정' 실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생 경영도 본격화한다. 공단은 지역 내 상생 협력 구

매 이행률 100% 달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참여 예산제', 'ESG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소통마실 365'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 디지털 기술 도입 미래 경쟁력 강화 공단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조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AI 기반 수영장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수영장 혼잡도 정보 제공, 주차장 권종별 자동 감편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2026년 중점 업무 계획은 공단이 보유한 전문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농업인대학 채소과정 교육생 모집

20일까지 교육생 30명 모집

으로 구성됐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제22기 농업인대학 채소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특강 및 워크숍 △채소분야 작목별 재배기술교육 △생산력 향상을 위한 토양관리 △선진농가 현장교육 △농작업안전 및 농업세무 등 기초 이론, 심화전문교육, 현장실습 등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9회(88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기간 내 입학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

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공개 모집

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로,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6년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00만원(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며 시는 전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 2개소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추락방지 안전펜스 설치 △전기화재 예방시설 보강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이다. 보조금은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비 초과분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전주 산업단지에 소재한 상

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가입이 필수이다. 단 △지방세 체납업체 △2024~2025년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 △무허가 건물 △공공장 신축·이전 기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 아이앰(애) 백일·돌상 무료대여 사업' 시행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 양육 가정 대상 백일·돌상 대여 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해부터 양육 가정에 백일상과 돌상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주 아이앰(애) 백일·돌상 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최근 가정 중심의 소규모 기념행사 트렌드를 반영해 부모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추진된다.

백일·돌상은 1가구당 4박 5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백일상은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돌상은 11~13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면 각각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누리집(www.jeonjusc.or.kr/toy)에서 사전 예약한 후 센터에 방문해 대여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6호 발간

## 전주 관광 발전 방향 관광객 편의 증진 콘텐츠·정책 패키지 제안

전주시정연구원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 향상 정책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 콘텐츠·정책 패키지를 담은 'JJRI 이슈브리프 제16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4가지 불편 사항으로 △정보·언어 단절 △길찾기·이동 부담 △절차 장벽 △야간 불안 등이다.

이에 연구원은 'ULX(도시형 위치기반 체험관광)' 모델을 제안했다.

ULX의 핵심은 '스토리&미션 - 길찾기&이동 - 실감기술&장치 데이터&피드백'의 결합으로, 관광객은 미션 안내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또 GPS·QR·NFC·AR 등 장치는 다국어 안내를 '읽기'보다 '수행'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 부담을 낮추고, 미션의 완주·이탈·체류시간 등 로그는 실제 불편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여줘 안내·사

인·운영을 반복 개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전주 적용(안)으로 '온보딩 1 + 주간 5 + 야간 1'의 에피소드 구조를 제시했다.

'EPO(온보딩)'는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도착 거점에서 언어 설정과 교통·결제·안전 핵심 안내, 코스 추천과 사용법을 3~5분 안에 제공해 여행 초반 이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간 에피소드'는 △기록문화(전주사

고/실록) △왕실유산(경기전/태조어진) △출판·공예(완판본·한지) △시민서사(동학 등) △고대사(후백제) 등 전주 고유 자산을 미션으로 연결해 도시 순환과 체류 확대를 유도한다. '야간 에피소드'는 전라감영·객사 권역을 중심으로 안전 동선을 전제로 설계해 '밤에도 편안하게 머무는 전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16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2026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발굴

## 총 508가구 대상 냉·난방 설비 전액 무상 지원 예정

전주시는 '2026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전담해 진행된다. 아울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주시 지원 규모는 냉방 221가구와 난방 287가구 등 총 508가구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시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사업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 가구 발굴에 힘쓰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안내

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벽걸이 에어컨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의 냉방지원사업과 벽체(천장)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의 난방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시는 냉방은 오는 27일까

지 난방은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냉방과 난방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 △동사업 수혜기간 미경과자(난방=2년, 냉방=8년)는 신청할 수 없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올해가 마지막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위해 노후차와 건설기계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노후차 600여대를 폐차할 수 있는 총 11억

원 규모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 소유자 등이다.

시는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마지막 기회이므로 시

는 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단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량마다 지원기준이 다른 만큼 전주시 누리집의 공문을 참고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www.mecar.or.kr)으로 신청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기후변화대응과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복지재단, 청소년 통학비 지원 확대

저소득가정 원거리통학 고등학생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올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재단은 고물가로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는 12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연간 지원액도 27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중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고,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이름을 통해 재단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통학비 지원은 청소년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이며, 최근에는 시민의 따뜻한 참여가 더해지며 더욱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꿈이 통학비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시민의 나눔이 청소년의 미래로 이어지는 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52건 단속

전북경찰청은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52건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형사팀, 지역경찰 등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전주 종합경기장 등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전배치하고,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의 폭주족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사전 폭주 활동 억제와 홍보 효과를 위해 공휴일 전일 낮시간대부터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 1일 심야 시간대에 출몰한 폭주족(이륜차2~3대, 차량 1대)을 적발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통고처분 하는 등 양일 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으로 50여건 등이 단속됐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 17가정 왕복항공권 체제비 지원...농촌 생활 정착·활력 도모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이 농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과 농촌 활력화를 위해 다문화가정 17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성훈 본부장, 김문중 조합장을 비롯해 전북을 대표해 진안농협에서 추천한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모국방문 왕복항공권과 체제비 등을 전달하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응원했다.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농협제

단 후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및 자녀로 금년도에는 바쁜 영농활동으로 인해 모국방문 기회가 어려웠던 전북 지역 다문화가정 17가정, 60명이 지원을 받는다.

김성훈 본부장은 "먼 이국땅에서 오셨음에도 농촌에 힘이 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요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이 초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잘 적응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문중 조합장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농촌생활을 하고 계신 결혼 이주여성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농협과 진안농협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전북농협>

했다. 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경진원 '전북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

## 지역공동체 성장 디딤돌 신규 마을기업 교육 개최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마을기업 설립 전(입문) 교육을 오는 30일 경진원 2층 도전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120개 마을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교육대상은 2026년 신규 마을기업 준비 공동체에 한해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공동체는 구성원 5인이상이 반드시 7시간의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마을기업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과 검증 단계를 거쳐 안정적인 마을기업 설립을 지

원할 계획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신규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문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잎 전용 고추 '원기2호' 특허등록

## 혈당 관리에 도움 국수 등 가공식품 10여종 상품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우수한 잎 전용 고추 '원기2호'의 제품화를 확대해 침체한 고추산업에 새 활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춧잎은 예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인히비터(AGI)' 성분이다.

이 물질의 관련 기전은 제2형 당뇨병 치료 의약품에도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점에 주목해 2005년부터 85여 점의 고추 유전자원을 분석, 2020년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했다.

'원기2호' 고춧잎은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74.8%로 일반 고춧잎보다 2-5배 높다. 동물 실험 결과, 공복 혈당은 13%, 혈장 인슐린 농도는 24%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QUICKI)는 38% 증가하는 등 11개 당뇨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원기2호'의 품종보호등록과 특허등록을 마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가 시범재배 지원 △민간 종묘회사와 품종(통상실시) 계약 △가공업체 대상으로 특허 기술을 이전 중이다.

현재까지 '원기2호' 품종은 8곳에, 특허 기술은 8개 업체에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분말 제품을 비롯한 고춧잎 차(음료), 누룽지 칩(과자), 국수, 두부 등 가공식품 10여 종을 상품화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참고로 '원기2호'의 고춧잎은 고온·건조한 조건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활성이 유지돼 가공 적합성이 높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인 당뇨병 유병률은 14.8%에 달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관련 의료비 부담이 사회 경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우리 고추산업은 고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로 15년 새 재배 면적이



<사진=농진청>

39.5% 넘게 줄어 집체기를 겪고 있다.

'원기2호' 제품화 확대는 일상적인 채소 섭취를 통해 혈당 관리를 돕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부산물로만 여겨지던 고춧잎을 고부가 가치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경영 여건이 어려운 고추산업에도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 모형(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

현 원장은 "'원기2호'는 버려지던 고춧잎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을 함께 생각한 연구 결과물"이라며 "디지털 육종 기반 기술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채소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경력지원' 시행

## 50대 이상 구직자기업 대상

전북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이명숙)는 5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와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장년경력지원제' 사업을 시행한다.

'중장년경력지원제'는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현장실무 경험·직무 멘토링·마인드 교육·디지털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경력지원제의 참여 기간은 1~3개월이고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금이 지원된다.

참여 요건은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미취업자이며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전북센터에서는 전북 소재 기업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경력지원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 지원 내용,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 연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 농협 비 전북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 적정생산 추진방안 논의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4일 전북본부에서 2026년도 농협 비 전북협의회(회장 백낙진 금마농협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협의회원 조합장 및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2025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치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해 양곡사업에 대한 회고와 올해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수급현황 점검 및 쌀 적정생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백낙진 협의회장은 "지난 해를 돌이

켜 보면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이 힘든 한 해였지만, 쌀값 회복으로 인해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정활동 등 협의회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올해도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정부양곡 대역 등 새로운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는 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우리 전북본부에서도 농축협 및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지원과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 실천을 통한 쌀 소비촉진 등으로 안정적 양곡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대상자 신청

## 오는 25일까지 접수

중기부는 대한민국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대상자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받는다.

벤처창업진흥 유공·포상은 혁신성장 주역인 벤처·창업기업과 투자자, 지원 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상은 3월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말에 있을 벤처주간 행사에서 시상한다.

벤처주간행사는 벤처기업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작년 말 벤처기업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을 통해 올해부

터 정례화했다. 2026년 포상 규모는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41점과 중기부장관 표창 143점으로 총 184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벤처·창업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도전과 혁신으로 성과를 창출해 온 유공자를 적극 발굴·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모집공고 전북도·전북TP

1.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사업은 △R&D 전담조직 설립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융복합 R&D 과제기획 지원사업 구성.
2. '공동연구장비 활용 및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 사업은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등 2개 분야 추진.
3.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사업은 세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btp.or.kr) 또는 R&D종합정보시스템(https://rmd.jbtp.or.kr) 확인.

/김영태 기자

# 전북대병원, 신규 전공의 전문의로 인력 양성 박차

## 신규 인턴-레지던트 63명 필수의료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은 신규 전공의 대상으로한 전문의로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의 양성은 2026년 인턴 41명, 레지던트 22명 등 63명이 참여했다.

전북대병원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료윤리, 협진 시스템 이해 등 필수 교육들을 구성해 수련 초기부터 책임 있는 진료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신규 레지던트 교육은 수련제도 안내와 함께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료법과 윤리 △협진 및 회소체계 이해 등 필수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는 고난도 중증질환 및 암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다.

또 신규 인턴 교육에서도 △심폐소생술 △표준주의 △감염관리 △진단 시스템 활용 △의약품 관리 △의료분쟁 예방 등 실제 진료 현장과 직결되는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제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북대병원은 중증·암 환자 중심 진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시스템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단계별 맞춤 교육과 지원 체계를 통해 수련의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의료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임상교



육센터 신축도 추진하며 교육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전북대병원>

육센터 신축도 추진하며 교육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공의 교육은 미래 의료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를 서비스로 제

공하고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의료진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천호성 예비후보 “학생이 건강한 학교 만들겠다”

## 학교환경조성 핵심 관계 중심 마음·건강 지원 확대 정책 발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관계 회복 중심 마음·신체 건강 성장 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의 정책 발표는 학교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전북도 교육계 변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천 예비후보는 관계 중심 학교 조성을 위해 공립유치원과 초·중



천호성 예비후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공립유치원 3세 반 12명, 4세 반 14명, 5세 반 16명 규모로 운영하며, 초·중학교는 학급당 20명 수준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음·건강 학교’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늘려 정서 역할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계획이다.

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내실화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학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검진 주기와 콘텐츠를 고도화해 학생 건강권을 빈틈없이 보장할 방침이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와 저탄소 식단을 반영한 ‘28년까지 전체 급식 50%를 지역·친환경 식재료 구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 웃음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가는 마중물로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걱정 없이 배우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총 9억9085만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에서 학교별 앨범 계약단가에 따라 학교로 교부되며, 학생에게는 현물(졸업앨범)로 제공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만4155명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군산대, 국내 최초 고율 바이오수소 파일럿 플랜트 구축

## 안정성·경제성 확보 산업화 기반 마련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주형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정훈 수석연구원 연구팀, 연세대 김상현 교수, SK에코플랜트 최욱경 프로, 건국대 양영현 교수, 고려대 이상훈 박사과 공동으로 전북 군산시 하수처리장에 국내 최초 고율 바이오수소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본격

운전에 착수했다.

파일럿 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과제 지원을 받아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탄소중립형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의 산업적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실험실 규모에서 확보한 혼합균주 개량 기술과 전도성 담체 기반 고효율 발효 실험정을 연속식 파일럿 공정으로 확장해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연속식 운전 조건에서

개량 균주를 실제 공정에 적용해 일일 수소 생산량 30.0m<sup>3</sup>H<sub>2</sub>/d 이상 달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 2kg CO<sub>2</sub>/kgH<sub>2</sub> 이하 달성을 목표로 운전하며, 30일 이상의 장기 운전을 통해 생산성 및 공정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팀은 그동안 빛이 필요 없는 암발효 공정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 미생물(Clostridium 속)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전도성 담체를 적용해 미생물 간 전자 전달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

발해 왔다.

또 이미 유의미한 수소 생산 증대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번 파일럿 가동이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파일럿 운전은 실험실 성과를 실제 공정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장기 운전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수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여자 컬링팀,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 우승

전북도 여자 컬링팀이 2026년 세계주니어 여자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도 여자 컬링팀이 덴마크 코펜하겐 타른비에서 열린 ‘2026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14대 7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컬링팀은 예선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준결승에서는 미국과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스웨덴을 상대로 초반부터 정교한 샷과 안정적인 전략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점수 차를 벌였고, 결국 14대7로 승리를 거두며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켰다.

권영일 감독이 이끄는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은 스킵 강보배, 서드 심유정,



전북자치도 여자 컬링팀

<사진=전북자치도>

세컨 이보영, 리드 이우선으로 구성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권영일 감독은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믿어주며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우리 컬링팀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다시한번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전북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승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교육청 ‘데이터 도구실’ 개설...반복 행정업무 ↓

전북도교육청은 교직원 반복 행정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도구실’을 개설했다.

‘데이터 도구실’은 현재 총 19개의 데이터 처리 자동화 도구가 게시돼 있으며 도구별로 용도·사용 방법·주요 기능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도구로는 △엑셀 병합 손쉽게 하기(여러 파일·시트를 간단하게 병합) △학교명 표준화 도우미(취합된 자료의 학교명을 표준학교명으로 정리) △한글→PDF 일괄 변환 도우미(한글 문서를 일괄 PDF로 변환) △학교간 거리·시간 추출 도구(학교간 거리·이동시간을 한 번에 산출해 비교·분석자료로 활용) △전북 학사일정 데이터 추출기(전북 학사일정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추출해 일정 관리·분석에 활용) 등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고창군>

## 제5회 고창고인돌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고창 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제5회 고창고인돌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한야구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 전국 규모 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45개 팀, 61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유소년 야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 등 대규모 방문객이 지역을 찾으면서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고창군은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매년 춘계와 추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소년 스포츠 브랜드로 육성하고,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단위 스포츠타운 유지를 통해 지역 방문객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타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일교차가 큰 환절기!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세요

## 1. 손씻기 & 위생관리

감기나 독감예방을 위해

외출후 손씻기

철저히!

## 2. 운동 & 충분한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 & 산책으로

혈액 순환 원활하게

## 3. 면역력 키우기

제철과일 & 채소 섭취 및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강화

## 4. 수분 보충하기

하루 1.5~2L 물 마시고

가습기로 실내 온도 유지



### 정읍시, 12일 단풍아카데미 개최 문헌배 전 헌법재판관 특강

정읍시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정읍시에 송회관에서 문헌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제120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강단에 서는 문헌배 교수(전 헌법재판관)는 '재판관이 말하는 호의에 대해'라는 주제로 정읍 시민들과 만난다. 문 교수는 오랜 법조계 경험을 통해 얻은 법과 공동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배려의 가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정읍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전까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합예약 시스템 메뉴에서 '단풍아카데미'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강연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강연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인재양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임산부·태아 안전 강화 전용 안전벨트 지원 '호응'

익산시는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이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산부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해, 2023년 76명, 2024년 91명, 2025년 11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일반 안전벨트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복부 압박을 줄이기 위해 벨트 위치를 골반 아래로 조정해 허벅지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장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복부 충격을 최소화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산모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준비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1회 최대 6개월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보건소로 반납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군산시(복지정책과)는 지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저장강박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첫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군산시 경암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로, 집 안팎에 쌓인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해 본인의 건강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1월 해당 가구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차례의 가정 방문과 설득 과정을 거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환경개선 작업에는 청소 전문업체인 (유)부균지대와 군산시 희망복지지원체, 그리고 최근 발대식을 마친 경암동 '우리동네 똑딱이 봉사단'이 힘을 합쳐, 이틀간 집안 내부에 방치된 대규모 쓰레기를 수거하고, 전문 장비를 동원한 살균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2025년 하반기 고용률 61.5%

### 전년대비 21%p↑ 취업자 5천명 증가 전방위 일자리 정책 효과

군산시 고용지표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데이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시 2025년 하반기 고용률은 작년 하반기 대비 2.1%p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는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5,000명이나 증가해 14만 2,000명을 기록했다.

또한, 15세~29세 청년고용률도 전년 동기 대비 3.2%p 상승하며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도 확인됐고, 이외에도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6천명 증가하는 등 모든 고용 지표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지역 고용 여건이 크게 흔들리며 고용률이 52.6%까지 낮아진 바 있으나, 민선7·8기 동안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고용



고용률 증가 관련 참고자료

<사진=군산시>

률을 현재 61.5%까지 끌어올렸다.

시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등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정착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신산업 일자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골목상권부터 산업단지까지 전 분야에서 고용회복세가 이어지며 고용지표 개선으로 연결됐

다고 밝혔다.

이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고용지표 개선은 단기적 효과가 아닌, 산업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목부터 산업단지까지 전방위 일자리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북면~칠보 708호선 4차선 확장

### 도비 777억원 투입 전북도 계획 반영

정읍시 북면과 칠보면을 잇는 2차선 간선도로가 도비 777억원을 투입해 폭 18.5m의 4차선으로 대폭 넓어진다.

정읍시는 북면과 칠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708호선 확포장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에 최종 반영돼 도비 77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북면~칠보 간 총연장 7km 구간이다.

시는 기존에 좁고 불편했던 왕복 2차로를 도로 폭 18.5m에 달하는 널찍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사업 확정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그동안 지방도 708호선은 정읍 시내

권과 칠보, 산내, 산외 등 동부 내륙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좁은 도로 폭에 비해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는 건의가 빚바치던 고질적인 숙원 구간이었다.

시는 이번 확포장 공사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 병목 현상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산내 옥정호, 김명관 고택 등 정읍을 대표하는 동부권 관광 명소로 향하는 접근성과 물류 이동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확정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방도 708호선 확장이 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며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도로 계획 반영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온 값진 결과"라며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차질 없이 제때 착공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번 확포장 사업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정읍의 동서 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숙원사업"이라며 "앞으로 도비 확보 등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2026년 문화유산 청사진 제시

### 유적 관리 체계 강화 체험 콘텐츠 확대

익산시가 2026년을 '백제왕도 세계유산도시'의 가치를 완성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 시는 핵심 유적의 고품격 보존·관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백석희 문화교육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익산 문화유산 청사진'을 발표했다.

먼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익산무왕릉(쌍릉) 등의

보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유일의 백제 정원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는 '백제왕궁 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중순 마무리돼 고품격 백제문화의 산 교유장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옥과 담장 정비, 가로경관 개선 등 고도(古都) 경관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도 강화한다.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를 기록한 유일한 사료인 일본 '관세음유협기' 특별 전시를 추진해 왕도의 위상을 재조명한다.

체험형 콘텐츠는 더욱 풍성해진다. 오는 4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행사 공간을 금마 일원까지 넓혀 지역 연계형 축제로 차려지며, 9월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는 무대를 미륵사지 전역으로 확대해 현대적 감각의 빛과 음악으로 백제의 미학을 재해석한다.

시는 지난 5년간의 문화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 속 문화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백석희 국장은 "백제왕도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순항'

### 내년 8월 준공 목표 안전관리 실무인재 양성

군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기초 보강 공사에 착수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유지보수(O&M)·안전관리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력이다.

센터는 향후 해상풍력 유지보수(O&M) 및 안전관리 분야의 숙련된 실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GWO(세계풍력기구) 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과정을 운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군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인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될 예정인 만큼, 항만 물류 인프라와 센터의 교육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조·물류부터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반 여건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공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월 기초 보강 공사에 착수하면서 정상화됐으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세계풍력기구(GWO)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헬릭스리프트 탈출 훈련 시뮬레이터 △고급 구조용 폴 너셀 △무인잠수정(ROV) 훈련 장비 등 최첨단 실습인프라도 2027년 개관 일정에 맞춰 통합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자들의 실무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명품 스포츠 도시' 도약

228억 투입해 체육기반 강화

익산시가 도심과 외곽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체육 시설 확충에 나선다. 집 근처에서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명품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백석희 문화교육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체육부터 전문 체육까지 아우르는 '2026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총사업비는 228억 원이며, 올 한 해 예산은 29억여 원이다.

먼저 북부권 용안면에는 옛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복합 체육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파크골프장을 18홀에서 36홀로 늘리고 족구장과 녹지 공간을 더해 시민 쉽터로 탈바꿈시킨다.

황등면에도 축구장과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설도 대폭 늘린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 모델도 눈길을 끈다. 시는 원광대학교 내 야구장과 테니스장 등을 고쳐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한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시설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또한 종합운동장에는 정규 야구장과 어린이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익산시 청소년 야구단(U-15)을 창단해 유망주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백석희 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주말 사이 산불 8건 출동

### 건조한 날씨·강풍...주의 당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 산불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읍시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8건의 산불 출동 현장을 초기 진화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최근 과거 동해안과 경북, 강원 지역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처럼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하는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정읍시 역시 건조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정읍 관내에서는 총 8건의 산불 출동이 발생했다. 당시 기온이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6도를 오르내리고 초속 3.5m의 매서운 북서풍이 부는 등, 건조한 대기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

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투입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일부 긴박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수십 명의 인력이 긴급히 합류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펼친 덕분에 다행히 8건 모두 큰불로 번지기 전에 초기 진화되며 상황이 종료됐다.

이학수 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 역시 한순간에 방심할 수 없다"며 "행정의 노력과 대응만으로는 잦아지는 산불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수출 성장사다리 구축 사업 본격 추진

###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수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체보험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료 지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무역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거래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월 초에는 KOTRA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지사화 사업 등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중앙동, 방치된 타워크레인 11일 철거

익산시가 2년 넘게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던 중앙동의 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철거한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해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현장은 2023년 8월 공사가 멈춘 이후 도심 한복판에 타워크레인이 그대로 방치돼 왔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크레인이 움직여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 해체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설득한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체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합의를 끌어냈다.

철거는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낙하 위험이 큰 상부 구조물(불대, 균형추)을 먼저 제거하고, 주탑 부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추후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철거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주)마이크로솔루션  
(주)태양, 총 73억6천만원  
투자...고용 창출 기대

고창군이 4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임주를 위한 (주)태양 및 (주)마이크로솔루션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창군수와 김선국 (주)태양 부사장, 하병덕 (주)마이크로솔루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태양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부지 6735㎡(2040평) 규모로 47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품은 냉·난방용 스프레이밸브이다.

(주)마이크로솔루션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부지 약 6134㎡, 건물 990㎡ 규모로 총 26억6000만원을 투자해 2026~2029년 투자 이행을 추진한다. 주 생산품은 식물성 장 축진제다.



왼쪽부터 (주)태양, 고창군, 마이크로솔루션

<사진=고창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제조 기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고창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기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률은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을 반영해 70.2%를 기록하는 등 분양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고창신활력산업단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입지선정 분야 Top10에 선정된 바 있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입주주요 입지 경쟁력과 산업 인프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고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18일까지 신청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단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8일까지이며, 참여기관 공모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이메일(gpwn1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 기관에서 프로그램별 최대 5개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선발은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모

집기관 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자살자해·도박·미디어·인권 예방교육으로 구성된 ‘올타리 프로그램’ △학습유형·진로탐색·성격유형 검사해석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심리검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예방중심의 집단상담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교와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9일부터 13일까지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김제시 여성회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제2분기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4개 과정 34개 과목으로, 취미·교양 분야에 라인댄스 등 15개 과목, 건강 분야에 건강기공 등 6개 과목, 인문·교양 분야에 생활영어 등 5개 과목, 야간 프로그램으로 난타 등 8개 과목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여성은 누구나 신청가능(남성생활요리·남성)하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 수강료는 3개월에 15,000원이다.

이번에 모집된 수강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시는 여성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력 향상 및 자아실현으로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참여작가 모집

16일까지 총 6팀 선정  
전시 기획·지원금 제공

김제시는 2026년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을 위해 참여 작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김제 동헌내야, 시민문화체육공원 등에 이동형 미술관을 설치해

지역작가의 예술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시각분야 예술가 총 6팀을 선정해 30일 간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지 또는 작업실을 두고 있는 작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에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 모집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동형 거리미술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지역예술가들에게도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행정

정효근 도시건설국장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김제시는 정효근 도시건설국장이 지난 3일 주요 시책 중 하나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김제시의 핵심 사업으로 교통 314-56번지 일원에 268면 규모의 주차장과 관리동을 조성, 도심 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화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밤샘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타지역에 차고지를 둔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영업 과정에서 김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한 정효근 도시건설국장 <사진=김제시>

밤샘주차를 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고, 이는 불법 밤샘주차로 이어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효근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지

속적인 현장행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 후 원활한 관리 운영을 통해 화물 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및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농작물 생육재생기 안전영농 지원

17일까지 전체출장 실시  
월동작물 등 생산 지원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7일까지 고창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출장을 실시해 월동작물, 수박, 복분자 등 농작물의 안전영농을 지원한다.

전체 출장은 최근 기상 분석 결과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봄철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오성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 직원이 농촌현장에 나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2026년 상반기 전체출장 <사진=고창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부안 공무직노동조합, 1천만원 상호기부

고창사랑기부제 정착 나서

고창군과 부안군 공무직노동조합이 고창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상생과 협력에 나섰다.

지난 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상호기부탁식에는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 최선례 지부장과 부안군 공무직노동조합 이말순 지부장을 비롯한 양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고창사랑기부금 1,000만 원 상호기부금을 진행하며 지역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지자체 간 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창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공무직노동조합의 고창사랑기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군산시 기부금 시작으로 2024년 부안군, 2025년 김제시와 정읍시 등에 기부금 이어가며 지자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선례 지부장을 중심으로 공무직노동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나눔과 상생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고창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제 지평선 시설 복숭아, 지난해보다 빠른 개화

5월 5일 전후 수확 예정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김제 시설복숭아가 붉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다.

4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5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은 5월 5일 전후로 예상돼 전국에서 가장 이른 복숭아 출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제시 시설하우스 단지에는 최근 복사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조생종으로 재배되는 김제 시설복숭아는 지난 1월 중순 가운을 시작해 노지 재배보다 약 40일 빠르게 출하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안정적인 온도

관리와 일조 여건이 맞물리며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돼 예년보다 개화가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0일경 시작됐던 본격 수확이 올해는 5월 3일 전후로 약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출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김제시 시설복숭아 재배면적은 6ha(12농가) 규모로, 노지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지역 대표 고소득 과수로 자리 잡고 있다. 지평선 팽야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는 높은 당도와 선명한 과피 착색을 만들어내며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식품산업, 농산물 활용 증류주 개발 착수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2026년 자체 R&D 연구 수행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의 주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증류주 개발 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증류주 제조 및 숙성 기술을 개발해 지역 전통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창의 쌀, 보리, 고구마, 복분자 등 지역 농산물의 양

조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원료별 증류주 제조 및 숙성 조건에 따른 품질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증류주는 향후 위스키, 리큐르, 복분자 강화 와인 등 지역색과 차별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 개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생기 연구원은 “고창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전통주 연구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주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법륜스님 초청 ‘군민 행복 고창포럼’ 성황리 개최

고창군이 지난 3일 오후 문화의전당에서 법륜스님을 초청 ‘죽문죽설’을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공감형 군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의 관계,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상처 등 다양한 삶의 고민이 이어졌고, 법륜스님은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간이 됐다.

스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이어졌고, 때로는 웃음이 어우러지며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창문화의 전당 650석 객석이 가득 메운 가운데 세대와 직업을 넘어 다양한 군민들이 서류의 고민에 공감하며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조용한 경청과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공감형 강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군민의 행복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부랑면 정월대보름 맞이 ‘벽골제 대보름 한마당’ 성료

김제시 부랑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벽골제 일원에서 ‘쌍룡과 함께하는 벽골제 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벽골제 쌍룡놀이 보존회(위원장 김윤용)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고유의 민속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및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풍성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벽골제 쌍룡놀이 보존회의 역동적인 쌍룡놀이 시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한 해의 풍요를 비는 풍년제와 단아씨네 설화를 담은 전통놀이 재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 활쏘기, 윷놀이, 연 날리기, 제기차기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이 운영돼 즐거움을 더했다. 오랜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찰밥을 나누고 주민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웃음꽃 피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이인덕 부랑면장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쌍룡놀이 보존위원회와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보름 한마당이 올 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자랑스러운 부랑면의 역사를 계승하는 일에 행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대한민국 옷칠목공예대전 '대통령상' 승격

### 단일 공예 분야 첫 최고훈격 대상 상금 4천만원으로 증액 4월 3~5일 작품 접수 진행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이 제29회를 맞이해 운영 공정성과 전통문화로서의 계승 필요성 그리고 현대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뤘다.

단일 공예 분야로는 대한민국 최초 사례로, 공예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국가유산청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 유일했다.

격상을 계기로 남원시는 옷칠 목공예분야의 권위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공예문화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상' 훈격에 걸맞게 대상의 시상금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해 대한민국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상금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시작했으며, 접수 대상은 옷칠 목공예, 같이 공예 2개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남원시 시청로 60)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에 직접 출품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관내 농가에 친환경자재 무료 공급

### 고온성 GCM·BM활성수 지원 지속가능 농업 기반 강화

순창군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를 이달 5일부터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친환경자재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총 1,510톤을 생산·공급하여 1,521농가가 혜택을 받는 등 농가 만족도가 높은 자재로 자리 잡고 있다.

고온성 GCM은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촉진 효과가 뛰어나 경종 농가의 수요가 많으며, BM활성수는 퇴비 부족 촉진과 축사 악취 저감 효과로 축산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자재 공급은 유등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BM활성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고온성 GCM은 매주 목요일에 수령할 수 있다.

공급은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온성 GCM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다. 신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063-650-5645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NH농협 남원시지부 신용카드 적립금 남원시 전달

남원시는 지난 4일 NH농협 남원시지부에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한 남원시청 제휴카드 적립금 8,430여만 원을 남원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남원시와 농협 제휴카드사 간의 협약을 체결해 발급한 남원시 복지포인트 카드,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 사용금액의 0.1 ~ 1%를 포인트로 적립한 것이다. NH농협 남원시지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9억 8,500여만 원을 남원시에 전달해 왔다.

남원시는 시 예산으로 지출되는 물품 등 소모성 경비 지출에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카드이용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전달된 적립금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수소·피지컬AI 경제 도약 청사진 그려

### 2026 완주 경제발전 토론회 개최 신산업 전략·민생경제 해법 모색

완주군이 수소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차세대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을 열었다.

4일 완주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완주 경제발전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완주에서 시작하다'라는 비전 아래 지역 주도의 산업 고도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이 주최하고 완주연구원과 완주수소연구원, 완주경제센터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완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신산업 전환 전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희대 완주군수의 개회사와 유의식 완주군의회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유동진 완주연구원

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한 가운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영수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군의원과 전문가, 기업·청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완주 경제의 미래 설계를 구체화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규택 원장은 수소 산업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완주가 보유한 산업단지과 제조 기반을 활용해 미래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수소 기반 국가 전략산업 대응과 실증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영수 원장은 지역 격차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기존의 단순 금융·보편 지원에서 과감히 벗어나 혁신 인력과 공급망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업 평가 위주의 방식에서 클러스터 단위의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해 완주형 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권 본부장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골목상권 회복 전략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역 기반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한 군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실행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 경제정책을 보완하고, 국·도비 연계 사업 및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 초청 계절근로 협력

### 딸기·토마토 농가 현장 방문 안정적 인력 송출 협력 확대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필리핀 정부 해외 인력송출 전담기관 관계자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관계자 초청에 이어, 4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로즈마리 듀케즈(Rosemarie G. Duquez) 노무관을 공식 초청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양 기관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듀케즈 노무관은 필리핀 인력송출 전담기관인 이주노동자부(DMW) 전 국장으로, 현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자국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해외 고용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송출

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그동안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송출국 정부 및 대사관과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듀케즈 노무관은 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지역 내 딸기 및 시설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근로 현장과 숙소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자국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근로 여건과 생활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은 송출 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와 근로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 농업농촌혁신대학 입학식 블루베리 심화·딸기 재배 과정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이 지난 3일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이날 입학식은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으며, 블루베리 심화 과정과 딸기 재배 과정 등 2개 과정에 선발된 교육생 43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육 운영 계획 안내와 학사 규칙 설명, 교육생 소개, 운영 규칙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듣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학습 의지를 다졌다.

농업농촌혁신대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순창군의 대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심화 과정과 딸기 재배 과정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와 소득개발시험포 등에서 진행된다. 강의뿐 아니라 현장 실습과 견학을 함께 운영해 실제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 실랜드 만족도 90% 위케이션 '핫플' 부상

### 일·휴식 결합 체류형 연수 운영 자연 친화 힐링 프로그램 호평

순창군이 실랜드를 거점으로 기업 대상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체류형 힐링연수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위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연수 형태를 말한다.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재충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최근 기업 연수 추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가야 오토랜드 광주 직원 135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기업 자체 교육과 힐링 콘텐츠를 결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통해 기업 단위의 체류 수요를 창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식문화 및 역량 강화 특강 △집중토론 △감성오일 체험 △힐링 아로마 요가·심잉볼 명상 △



실랜드 전경

며, 재참여 의향 역시 높게 조사됐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팀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됐다", "자연 속에서의 연수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창군은 이번 운영 성과를 발판 삼아 평일 및 비수기 기업 연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월예 92억·과수특작 54억 시설하우스 보강사업 추진

남원시가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월예·과수·특작분야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월예·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총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이 중 월예분야 18개 사업에 92억 원, 과수·특작분야 14개 사업에 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구성과 대상자 선정 방식을 정비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하우스 폭염 예

## 남원시, 원예·과수 지원사업 146억 투입 본격화

남원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방시설, 단동하우스 보강 지주대 지원 등 재해예방 신규 사업(4개 사업, 4억 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와 관내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7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ICT 장비·무인화시설 및 내재해·우수 품질 재배 기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 완주군,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신혼 최대 5천만원 지원 청년 3천만원 한도 제공

완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해 지역 내 안정

적인 정착을 돕는 완주군의 핵심 주거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완주군 관내 공공임대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청년(만18~39세)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의료·요양 통합지원 현장 돌봄 강화

### 고위험군 10건 지원 방안 마련 목욕·안전바·복약지도 연계

완주군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에 나섰다.

군은 최근 중앙도서관에서 관계 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의료·요양 통합지원 회의'를 열고, 의료와 돌봄 지원이 시급한 고위험군 대상자 10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결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위생 관리가 취약한 홀몸노인 대상 목욕 서비스 △겨울철 불행 어르신 맥내 안전바 설치 △건강 관리를 위한

치매 안심 지원 및 복약 지도 등이다. 특히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는 밀반찬 지원을 연계해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정례적으로 통합지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재한 보건·의료·복지 지원을 하나로 묶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울 방침이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은 "격주 정례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례 발굴과 신속한 연계에 박차를 가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시니어 걷기리더' 양성 교육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13명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시니어 걷기리더'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니어 맞춤형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보건소 소속 한의사, 기공체 조강사, 운동지도자 등 내부 전문 강사진이 투입돼 스타르게 걷기 이론 및 자세 교정 스템의 균형 잡기 △하체 강화 운동 및 스트레칭 △현장 종합 실습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수할 예정이다. 교육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이들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건강 걷기를 이끄는 핵심 걷기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수료자들을 시민 대상 걷기 프로그램인 '수요일엔 남원 한바퀴'의 현장 리더로 배치할 계획이다. 걷기리더들은 매주 수요일 시민들과 같이 걸으며 올바른 보행 자세를 지도하고, 안전한 활동을 돕는 등 실질적인 걷기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터별로 배분되어 지역 밀착형 건강 걷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장수군,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창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18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창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점포 리모델링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총 3천만 원(보조금 1천800만 원, 자부담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fifalyg@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빈집 정비 추진

무주군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 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이 2024년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지역 내 빈집은 총 478동이며, 이 가운데 철거가 필요한 곳은 466동,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12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군은 이들 중 접수된 빈집을 대상으로 노후·위험 빈집은 철거하고, 철거 후 조성된 내대지는 3년간 주차장, 텃밭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지사협, 2026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6일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안) 보고 △2025년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보고서(안) △2026년도 읍면 마을복지 계획 및 특화사업 추진 계획(안) 심의의결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 연합회 시행 계획은 '함께 만들고 당당하게 누리는 행복한 임실'을 목표로 8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사업, 중점추진 7개를 시행한 결과 115%의 목표를 달성했고,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3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2026년 읍면 마을복지계획 및 특화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보호체계 구축, 계절별 맞춤형 52개 읍면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인을 돌보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일 기자

## 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도대 최초 사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무주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절기(25년 12월~26년 2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하절기(26년 6월~8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등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오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3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 11억원 투입 도시숲학교숲 가로수 식재 등 녹색인프라 구축

임실군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맞춤형 녹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수 전정사업(나뭇가지 다듬기)을 시작으로 △경관조성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비료주기)사업 △도시숲학교숲 및 가로수 조성 △성수산 왕의숲 무궁화동산 조성 △계절꽃 식재 등 다양한 경관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녹색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여가활동 수요와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임실 성가리 카페 디에이 일원 도시숲

(0.15ha) 조성 △강진 백련리 호국원 1.3km 구간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 △오수 인화초중고등학교 학교숲(0.1ha) 조성 △성수산 왕의숲 무궁화동산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시숲은 임실을 성가리 일원 유흥부지를 활용해 교목·관목·지피식물을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된다.

학교숲은 오수 인화초중고등학교 일

정성의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도 9월 공고 이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총력



도시숲 사선대 기후대응

<사진=임실군>

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자연 친화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교육형 녹지공간으로 마련되며, 가로수 길은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단순 식재에 그치지 않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녹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일 기자

## 장수군, 온라인몰 '장수몰' 마케팅 설명회 개최

### 전년도 매출 12억 성과 공유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개막과 연계 결제로 활성화 박차

장수군은 한누리전당에서 장수군 지역 농특산물 소핑몰 '장수몰' 지역농가 및 임업업체 40여 명이 대상으로 '2026년 장수몰 온라인 B2C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품 디자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판매 소핑몰 운영과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년도 매출 성과 및 홍보 전략, 2026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군은 올해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열리면서 '장수몰'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지역상품권 chak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교육에서 고객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재구매율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몰'은 군에서 직영하는 농특산물 직영 온라인 소핑몰로 임업 농가의 품질 향상 노력과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2025년 매출액 1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의 매출액을 증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몰'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장수기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송인 '장수좋다'를 제작했고 장수군의 아들이자 군 홍보대사인 최재명 가수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에 참여해 군정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몰이 임업 농가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본소득 연계 결제 시스템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장수몰'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 모집

### 오는 16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이 오는 16일까지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 15명을 모집(자세한 내용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공지사항 확인)한다.

2년 만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은 매월 10만 원 납부 시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

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480만 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군에 거주하며, 최소 5개월 이상 근로(사업자 포함)를 지속 중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18~39세(1986.1.1.~2007.12.31. 출생)가 해당한다.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은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누리집(https://double.jb2030.or.kr)에서 하면 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고불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두 배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청년들의 무주 정착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

### 안전 최우선 다짐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단 등 산림사업 근로자 100명이 참석해 숲가꾸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품질 향상, 무사고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군민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최일선 현장 인력이라는 사명감을 공유하며 안전수칙 준수

### 를 다짐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림사업장 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은 산림조사단, 숲가꾸기페트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도관리원, 산사태관리원, 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개 분야 총 100명으로 구성된 인종 운영된다.

각 분야 인력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은 물론 도시 가로수 관리와 생활권 주변 산림 민원 처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로컬업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로컬 산업 분야 5개 선별 집중 지원

임실군이 지역 내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로컬업(Local-UP)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임실군 소재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 버터·치즈 등 유제품, 발효식품, 건설 자재 등 제조업 등 로컬 산업 분야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군은 올해 총 5개 기업(제조업 4개소, 일반업 1개소)을 선별하여 협약일로부터 연말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에 필요한 기업지원금이 제공되며, 지원 규모는 제조업 개소당 15백만원, 일반업 개소당 14백만원 수준이다.

또한, 참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구직자 발굴

및 신규 고용 창출 연계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고용 연계형'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 조건이다. 선정 기업은 관리자 필수 교육(1회)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채용 인원 2명 중 1명 이상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기업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채용 인력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및 사업 종료 시점(12월 31일 기준)까지 고용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미충족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 내 사업장을 둔 로컬 산업 분야 기업이며, 군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063-640-2406) 또는 수행기관 전주지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한병일 기자

## 무주군, '통합돌봄 서포터즈' 활동 시작

무주군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일 무주군통합돌봄문화체험관에서는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발족해 눈길을 끌었다.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단은 올해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안전 수칙 준수', '성실한 활동 참여' 등을 다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 실행력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이정우 부군수를 비롯해 류지봉 행정복지국장, 황현철 농산건실국장, 실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부서별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연구 방법론도 함께 설명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전략과 기금 투자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정우 부군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기금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효나눔 한마당 행사 개최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복지관을 방문 및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2026년 정월대보름 맞이 효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은 국가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단과 연계하여 공연으로 신명 나는 가락을 선보여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으며, 공연 직후에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럽 세트를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임실군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오곡밥과 나물 등을 배식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식당 안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 남원 흥남동, 저소득 취약계층에 '맛있는 한끼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흥남동행정복지센터와 흥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월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금번 추진하는 '맛있는 한끼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식사지원을 위한 모 건설회사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연말까지 흥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맛있는 한끼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식사 쿠폰을 제공하여 흥남동 소재 인근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끼니 해결에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들은 제공된 쿠폰을 사용하여 흥남동 소재 참여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다.

흥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원태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한 끼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송암문화장학재단, 남원 장학숙 입사생에 장학금 전달

### 총 1,050만원 전달

송암문화장학재단이 올해도 남원장학숙 학생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장학금은 남원장학숙 입사생 7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이 지원된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자, 지역 사회가 보내는 격려의 손길이다.

송암문화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남원장학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

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나눔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변함없는 고향 사랑의 실천이자 남원 인재 양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창용 이사장은 평소 "고향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남원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익산 '이리북문교회', 취약계층 아동 위한 장학금 기탁

### 600만원 기탁 기부 9년째 이어와

익산시 신동에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리북문교회(담임목사 김종대)는 4일 신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매월 10만 원씩 5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학업 지원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리북문교회는 '부스스리기 나눔

탑'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매년 3월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로 9년째 나눔을 실천해 총 39명에게 누적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을 뒷받침해 왔다.

김종대 담임목사는 "새 학기를 맞아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힘찬 출발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밑반찬 나눔 행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우리 고유의 절기 음식을 통해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보름의 의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찰밥과 김, 시원한 물김치 등을 꾸러미로 구성해 각 가정

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홀로 보내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우리 고유의 절기 음식을 통해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보름의 의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찰밥과 김, 시원한 물김치 등을 꾸러미로 구성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홀로 보내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김제=은봉기 기자



### 익산 다이로움밥차 운영 시작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다이로움밥차'를 통해 현장 중심 복지를 이어간다. 익산시는 4일 함열 아사달공원

에서 다이로움밥차 운영을 시작했다. 다이로움밥차는 매주 수요일(혹서기·공휴일 제외) 취약계층과 거리 노숙인 등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3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다이로움밥차는 시민과 기업, 단체의 자발

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이로움밥차는 단순한 급식 지원 사업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완주 화산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찰밥' 나눔 행사

완주군 화산면 새마을부녀회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사랑의 찰밥 나눔 행사를 열었다.

화산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최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수익금으로 정성껏 찰밥을 준비했다.

부녀회원들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찰밥을 전달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히 살피며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 고창 해리면지사협, 관내 초등학교 입학 축하·응원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일 새 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을 축하해'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학교를 찾아 초등학교 입학아동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문구교원권과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민들의 마음을 전달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아이들의 입학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지역사회의 경사"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인사

▲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 3. 4.자)

###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金泰丁)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李九泳)

##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사용하기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一事一言〉



K-방산의 심장 현대로템, 왜 무주인가

김관순  
주필

전해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도시민들에게 힐링 명소로 사랑을 받아 온 무주군이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덕유산 자락의 청정 자연과 관광·휴양지 이미지로 각인된 무주군에, 이제는 초음속·극초음속을 다루는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이 들어선다. 전북 동부권이 산업지형을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현대로템과 무주군 일원에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76만 330㎡, 축구장 107개에 달하는 부지에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는 단순한 공장 신설이 아니라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검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R&D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지다. 관광의 도시가 기술의 도시로, 휴양의 공간이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이번 기지의 핵심은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생산이다. 덕티드 램제트는 공기 흡입 방식으로 작동해 고효율·장거리 비행이 가능해는 차세대 추진기관으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좌우할 전략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방산분야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무주에서 본격화한다는 점은 상징성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방산 경쟁력 강화

는 물론, 유도무기 체계 고도화와 수출 확대라는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무주에 '관광'을 넘어 '첨단 항공우주' 도시로 도약하는 배경에는 전북자치도의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이 있다.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부권에 적합한 신산업 모델을 찾기 위해 도와 군은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리적 여건과 확장 가능성, 적극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결합해 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협약 체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기업 유치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성되고 있는 국가적 흐름도 무주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정책을 중심으로 우주정책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위성·발사체·추진기관 분야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항공우주 산업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이러한 시점에 전북 동부권에 종합 생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우주·방산 전략과 맞물린 구조적 재편의 신호탄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적지 않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R&D 기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쇄 이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킨다.

전북 동부권은 물론 도내 청년

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첨단 산업 현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관광과 농업 중심 구조에 머물렀던 지역 경제가 고부가가치 제조·연구 산업으로 다변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규모 산업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안정적 인력 공급,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단순한 '공장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투자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지는 일도 중요하다. 항공우주 특화 산업단지 지정,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보조금 확대, 전문 인력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 패키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 대학과 직업계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기지가 단순 조립·가공 기지를 넘어 원천기술을 축적하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방산·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끌어들이는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다층화해야 한다. 무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동부권 전역으로 확

산될 때, 비로소 전북의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현대로템은 일찍부터 K2 전자 수출 등으로 K-방산의 위상을 끌어올린 국내 굴지의 대표 방산 기업이자, 최근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무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님을 말해 준다. 첨첨이 산이요, 골골이 물인 심산유곡의 고요함 속에서 초음속과 극초음속의 기술이 태동하는 역설적 장면은, 곧 전북 산업지형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작' 이후다.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가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실질적 심장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군과 기업과 지역사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휴양 관광의 도시 무주가 첨단 과학기술의 도시로 재탄생하는 이 도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 성공한다면, 전북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 서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이다.

사설

양보다 질...전북 축제의 체질을 바꿔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36개 육성축제를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키우겠다고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를 중심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가·컨설팅과 현장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튼 점은 시의적절하다. 이젠 '많은 축제'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승부해야 할 때다.

지역축제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과 숙박·교통·문화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글로벌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되고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역만의 독창적 스토리와 콘텐츠를 갖추지 못한 축제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여행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듯 축제 성공의 관건은 '대표 콘텐츠'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대 공연과 천편일률적 먹거리로는 세계인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일부 축제는 지역 안배와 관성적 지원에 기대 명맥이 이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방문객 수는 부풀려지고, 차별성은 희미하며, 예산 대비 효과는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품격과 독창성과 완성도가 떨어지고, 지역 정체성과 연결되지 않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퇴출하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축제를 끌어안는 방식으로는 어느 것 하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반대로 독특한 콘텐츠와 성장 잠재력

을 갖춘 축제에는 과감한 투자와 전문적 컨설팅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생태·전통문화·미식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고,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전북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축제 기획 단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 언어 서비스, 교통 접근성, 온라인 홍보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글로벌 기준의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현장관리 역시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바가지 요금, 안전관리 미흡, 무질서한 운영은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물가 모니터링과 상인회 협력, 안전 메뉴얼 표준화, 인권·친절 교육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축제는 지역의 얼굴이며, 공공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신뢰를 잃으면 관광도 없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원칙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방문객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상시화해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축제가 끝난 뒤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즉각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경쟁력이 축적된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전략 산업으로 축제를 재정의해야 한다.

전북이 진정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려면 '축제의 고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36개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시장에서 통할 '몇 개의 명품 축제'를 키워내겠다는 각오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전략적 집중만이 전북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젠 결단의 시간이다.

오늘의시

3월의 바람 속에 / 이해인

3월의 바람 속에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이 계시기에  
아직은 시린 햇빛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  
당신을 만나는 길엔  
늘상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아 있기에 바람이 좋고  
바람이 좋아 살아 있는 세상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먼 데서도 잠들 수 없는 당신의 바람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시인 약력 : 1945년 강원도 양구 출생의 수녀 시인. 필리핀 성 루이스대학 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1976년에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발간했다. 1997년 '해인글방'을 열고 문선교회를 시작했다. '말의 빛'은 초등학교 5학년 언어 영역 읽기 교과서에 실려 있다. '내 혼에 불을 놓아' '시간의 얼굴' 등 시집과 산문집 '두레박' '꽃집' '사랑할 땐 별이 되고'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독자광장

어린이 유괴 예방, 관심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등하굣길과 학원 이동 시간 등 보호자의 눈을 벗어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일수록 어린이 유괴·실종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범죄는 도움 요청을 가장하거나 보호자를 사칭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보호자 허락 없이 누구와도 이동하지 않도록 분명히 지도하고, 가족만 아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정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험을 느끼면 큰 소리로 도움

을 요청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반복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자 역시 가능한 등하굣길을 함께 점검하고, 자녀의 최근 사진을 보관해 두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은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해질 때 완성됩니다. 신학기를 맞아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화암사증창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가천리)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195-1033-4401

2011년 10월 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1만2천)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승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봄의 전령사, 삼례 딸기가 전하는 붉은빛 유혹

##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일원서 개최

겨우내 잠들었던 대지를 깨우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완주군 삼례읍이 다시 한번 달콤한 향기에 젖어든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며 지역 대표 축제로 뿌리내린 이번 행사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더욱 탄탄해진 기획과 풍성한 볼거리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달콤한 축제의 서막, 화려한 개막식과 공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은 둘째 날인 7일 오후 2시에 화려하게 시작된다. 정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행사는 지역 대학인 우석대학교 하모니 4인조와 보컬밴드 돌리미의 활력 넘치는 식전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예열한다. 공식 행사에서는 개회 선언과 함께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20여 명이 참여하는 개막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축제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식후 행사로 '아모르파티'의 주인공 김연자와 싱어송라이터 김완준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삼례의 봄날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

이번 축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삼례 딸기를 직접 따보는 '딸기 수확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꼽으며, 딸기 판매장과 홍보관에서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고품질 딸기를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제2회 딸기꿈나무 자랑대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에 생동감을 더한다. 이외에도 황금 딸기를 찾아라 이벤트, 행운권 추첨, 그리고 밤의 열기를 더할 딸기 EDM 파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사흘 내내 이어진다.

방문객을 향한 세심한 배려, 편리하고 안전한 축제 지난해 방문객 10만 명, 매출액 6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완주군은 올해 편의 시설과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 공설운동장 정문과 우석대학교를 기점으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다. 행사장 내 동선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푸드 트럭존, 체험존, 쉬터 등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요원 보강 배치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유희태 완주군수 "삼례 딸기, 지역 경제의 달콤한 활력소 될 것"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의 핵심 가치를 '방문객의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었다. 유 군수는 지난해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며 확인된 삼례 딸기의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축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방문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주차와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배차 간격을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접근성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삼례 딸기만의 차별화된 매력에 대해서는 만경강 상류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이 빛어낸 품질을 으뜸

으로 꼽았다. 유 군수는 "삼례 딸기가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전국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자부한다"며 "축제 현장에서 맛보는 것 수확한 딸기는 시중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선함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통해 삼례 딸기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군수는 "이번 축제가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보는 장이자,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